

‘젊은 도시 광양’...청년 주거 안정 정책 ‘전력투구’

최대 연 3% 대출이자 10년간 지원...전국 최고 수준 창업 희망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정

광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광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광양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타 기초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원액은 49억원, 지원기간 10년, 수혜 대상 1천172명으로 세 분야 모두 광양시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 주거 지원 대표 공약으로, 19세부터 30세까지 광양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천6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3%까지 최장 10년간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접근성·편의 도모를 위해 협약 은행을 2개소(농협·신한은행)로 확대하고 방문 접수 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도록 신청 방법을 개선했

다. 이어 지난 6월2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책 협의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혜택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지게 했다. 광양시는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현행 19-39세에서 18-45세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 그동안 주택 주거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경우 주택 주거 전용 면적 제한을 없앴다. 이 밖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광양학사(서울 공공기술사) 운영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일반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자 등 광양시에 거주 중인 18-45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광양시는 신혼부부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등에게 2023년까지 저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광양형 행복타운 공공임대주택(110호) ▲광양형 창

업타운 공공임대주택(150호)을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불만 해소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밑바탕을 그릴 계획이다. 박주영 청년일자리과장은 “광양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로 새로운 청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화순군이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와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주요 현안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더불어민주당, 지역현안 해결 힘 모아

郡 주요 현안사업 공유·국비 반영 건의 등

화순군이 더불어민주당 화순 지역위원회와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구복규 화순군수를

비롯한 신정훈 국회의원, 임지락·류기준 전남도의원,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화순지부 당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 사업과 협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 2025년도

국비 재정지원 건에 대해 논의했다. 화순군 주요 현안 및 협의 사항으로는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남산공원 조성사업 ▲동북면 개폐식 수문 설치 ▲동북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광주-화순 광역철도

구축사업 등을 공유하며 적극 협조를 부탁했다. 재정건의 사업은 ▲화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220억원) ▲순직 석탄산업전사 추모공원 및 역사관 조성사업(20억원) ▲남산공원 스마트 야간경관 조성사업(10억원)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5억원) ▲동구리호수공원 경관개선 사업(13억원) 등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논의된 과제 중 특히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군에서 단계적인 발전구상이 필요하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복규 군수는 “앞으로 실무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당정이 한 목표를 향해 군 주요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고흥군, 250억 투입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농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법인·청년농 양성 계획

고흥군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ha 규모 원예단지 조성에 국비 2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스마트팜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9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부터 치열한 준비와 경쟁 끝에 고흥군이 최종 선정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스마트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 조성 후 입주 농업법인을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된 농업법인이 기반 조성이 완료된 부지를 매입한 후 스마트팜 온실, 공동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공동육묘장 등으로 조성한다. 또한 선정된 농업법인은 20ha의 사업 부지 중 3ha를 고흥군에 기부채납하게 되는 데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지만,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사업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이 일대에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1천여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하게 하고 명실상부한 스마트 혁신밸리의 확산 거점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최보환 기자

“차별화된 인구정책 필요” 정광현 순천시의회 제안



정광현 순천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향·매곡·삼산·저전·중앙·사진)이 지난 23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에서 순천시민의 차별화된 인구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순천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 사업 18개는 상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거나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순천시민의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정책의 기반 조성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 전체 지역과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며 인구 감소의 연구·분석과 함께 이를 근거로 읍·면·동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단계적 기본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집행부 전담 조직 구성으로 인구 문제를 총괄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 의원은 분석된 지역 여건과 단기·장기 계획에 맞는 사업을 기획 및 시행하고 타 지역과 유사한 관광산업, 단순 일자리 사업보다는 시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핵심적 정책을 집적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순천=정기 기자

보성군, 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 시작

군청 민원실·12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보성군은 “최근 ‘보성 맞춤 우산’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성 맞춤 우산’ 대여 서비스는 보성군청 민원실과 12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우산을 비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다. 갑작스런 비와 햇빛을 피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 후 반납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가져가면 된다. <사진> 김철우 보성군수는 “작은 부분일지라도 군민들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 이번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 맞춤 우산’은 2023년 전남



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시상금으로 추진됐으며,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춰 비뿐만 아니라 무더위에도 유용하게 쓰이며 주민들에게 효용을 얻고 있다. /보성=임병연 기자

담양 한재골서 수목정원 물축제 첫 선

내달 3-4일 골드바 찾기·EDM 공연 등 행사 다채

제1회 대전면 한재골 수목정원 물축제가 오는 8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대전면 한재골 수목정원 일원에서 열린다. 24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발전도론편화 결과로 나온 대표축제 개최를 위해 지난 1월 기관사회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했으며, 지난 3월 기관사회단체장 회의를 통해 한재골 수목정원 물축제를 개최한다. 대전면은 성공적인 한재골 수목정원 물축제 추진을 위해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협력, 주차장 주변 코스모스씨 파

종, 계곡 진입로 개설·보수, 제작작업, 계곡내 물놀이장 조성 등을 실천하고 있다. ‘가자 물따라! 계곡따라! 한재골 물축제’로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축하공연, 노래자랑, 비눗방울 버블쇼, EDM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이 밖에도 국수, 닭강정, 분식 등 다양한 먹거리와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물풍선 던지기, 대나무 물총 만들기 등 10여가지의 즐길거리와 함께 전자포 탐승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

을 선사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오후 5시30분부터는 미니골드바가 걸린 ‘황금보물을 찾아라’, ‘황금닭을 잡아라’ 이벤트도 개최된다. 특히 4일에 진행되는 황금닭을 잡아라라는 닭을 잡기 위한 방문객들의 치열한 추격전이 예상되며, 이벤트 경품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체험 후 잡은 손닭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방남례 대전면 물축제추진위원장은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이 준비된 물 축제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도 대전면장은 “물축제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한 달간 안전, 교통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규 기자

여수 특색 담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2종 추가

요트 탑승권·섬섬옥수수 디저트 등 선택 폭 확대

여수시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22종을 추가 선정했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사진)를 통해 기존 농·수산물 위주의 답례품에서 탈피, 요트 탑승권 등 새로운 품목을 채택해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넓혔다. 이번 추가 답례품은 ▲요트 탑승권(92인승) ▲섬섬옥수수 소금빵·파운드케이크 ▲섬섬옥수수 마들렌·옥수수조청 오란다 ▲프라이빗 요트 투어 ▲여수돌산갯고등어 ▲여수말가·속·종합잡쌀떡 ▲블렌딩 썬차 ▲멸치 ▲여수옥수 ▲잠맛여수노루궁뎅이 버섯즙·유기농머쉬빈 ▲섬취남시에 등 11개 업체 제공 22종이다.

추가 선정 답례품은 8월부터 기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에 보답할 답례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며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많은 이들이 여수시 고향사랑기

부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부는 전국 농협 창구 또는 누리집 ‘고향사랑e음’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김진선 기자



구례군, 치매치료관리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120%→140%까지...돌봄 강화·경제부담 경감

구례군은 24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월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802만 2천원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구례 군민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료 약 처방이 기재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신

분증, 본인 명의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기준 확인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6월30일 기준 620명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치매 환자 중 64%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거나 전화(061-780-293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례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및 인지 프로그램 운영,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